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교 훈  
진리 · 창조 · 봉사

# Library News

건학이념  
기독교 정신의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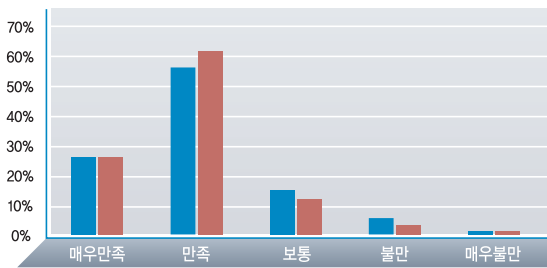
제18호 2010년 12월 도서관 소식 (반년간) DONGSEO UNIVERSITY LIBRARY NEWS 발행인 : 박동순 / 발행처 : 민석도서관 T. 051-320-2065

## Headline News

“도서관 이용 만족도 꾸준한 증가! 이용자 요구사항 적극 반영!”

민석도서관에서는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매년 도서관 이용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2010년 11월 2일 225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만족도와 개선사항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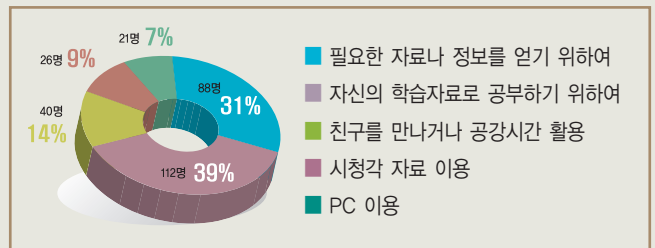
### ▶ 도서관 이용 만족도



‘만족’으로 답한 이용자가 5% 증가하고, ‘보통’으로 답한 이용자가 4%로 감소, ‘불만’으로 답한 이용자가 2%로 감소하였다.

### ▶ 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

구분	2009년		2010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얻기 위하여	75명	35%	88명	31%
자신의 학습자료 공부	76명	35%	112명	39%
친구를 만나거나 공간시간 활용	28명	13%	40명	14%
시청각 자료 이용	17명	8%	26명	9%
PC 이용	16명	7%	21명	7%
기타	4명	2%	0	0
계	216명	100%	287명	100%



### ▶ 건의사항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우선순위에 따라 나타내면

- 프린터 확대
- 다양한 도서 구비 및 확충
- 개방시간 연장
- 시험기간 사석화 방지
- 화장실 휴지 관리
- 책신청 후 비치 기간 단축
- 학생증 없이 출입, 무선인터넷 속도향상, 자료실 및 스터디룸 정숙지도, 시험기간 이용시간 연장, 좌석확대, 프린터 관리, 도서관내 음식섭취 공간마련, 컴퓨터 확대, 화장실 냄새관리 등으로 조사되었다.

### ▶ 분석 및 조치

도서관 이용 만족도 조사결과 ‘보통’ 이상이 98%로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9년에 비하여 ‘만족’을 하고 있는 학생이 5% 증가하였으며 ‘불만’으로 답한 이용자가 감소하였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은 ‘자신의 학습자료 공부’와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얻기 위하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생들의 건의사항 1순위인 프린터 확대는 민석도서관 1층 자료검색코너에 2대를 추가 설치하여 이용을 하고 있으며, 다른 건의사항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민석도서관에서는 계속해서 학생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동서대학교 민석도서관 한국학술정보협의회 2010년 공로패 수상

- 국회도서관과의 정보교류협력 협정 체결기관 1,083개 기관중 11개 기관 공로패 수상 -  
대학교 3개 기관 / 전문도서관 4개 기관 / 공공도서관 및 기타 4개 기관



## 지역인사 칼럼

### 동서대학교를 지켜보면서



주례2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손 창 배

나는 항상 동서대학교를 사랑하고 믿으면서 크나큰 은혜를 받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알기로 학교법인 동서학원이 설립 된지 어언 45년이 흘렀고, 이 사람도 대학교 인근 마을 사상구 주례2동에서 지켜보고 느끼면서 살아 온지 41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동서대학교가 전국적으로 으뜸가는 대학으로 성장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크나 큰 자부심을 느껴왔으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크게 발전하여 서로 돕고 이해하며 공생 공존해 온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동서대학교를 통해 우리지역 주민들도 보고 배우는 여건이 조성되어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창조해 가는 평생학습의 장이 되어 지역주민으로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서대학교는 첫째, 현대식 첨단 민석도서관이 있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추구하며 지식정보 센터로서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면서 또한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디자인 전문 학술 정보 서비스를 개선, 교육 문화 및 휴식 공간 기능을 융합한 모델을 시행하고, 다양한 학술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 및 특성화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와 대학 도서관 및 연구기관들과의 상호 협력 체계의 중심기관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둘째, 민석스포츠 센터가 있어 배드민턴, 헬스, 배구, 농구 등 여러 가지 종합 체력 단련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어 건강 지킴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넓은 인조 잔디 운동장이 있어 학생들은 물론 지역의 주민들까지도 축구, 달리기, 마라톤, 걷기 등 즐겁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너무나 청결한 교정과 대학교 경내 수십만 평의 공간이 자연 학습 장소, 휴식처로 각종 꽃과 나무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이 교정을 산책하며 항상 고마움을 가지게 합니다.

끝으로 사회교육원에서는 훌륭한 강의와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를 이용해 이웃 지역민들이 문화, 예술, 음악, 교양 등의 평생학습과 취미 생활도 누릴 수 있어 행복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우리지역 주민들의 행운이요 축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서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함으로써 누리는 혜택은 말로써 글로써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이고, 그 큰 고마움을 이번 지면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다시한번 동서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합니다.

## 스마트폰 앱 오픈

IT 선도대학 동서대는 교육 및 행정, 캠퍼스 생활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모바일 캠퍼스'를 가동한다. 우리대학은 모바일 캠퍼스 가동을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Wi-Fi망 구축, 인터넷 1GB 설치, M-러닝 시스템 구축 등을 최근 완료했다.

### ▶ 도서관 메뉴

-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열람실 실시간 좌석현황 조회 가능
- 도서검색 및 대출기간 확인 가능



모바일 캠퍼스가 구축됨에 따라 학생들은 시·공간 제약을 넘어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활용해 효율적인 학사행정 및 모바일 강의를 볼 수 있게 됐다.

'동서대 스마트폰 어플'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서 학교 홈페이지 (<http://m.dongseo.ac.kr>)나 안드로이드 마켓(등록 준비중)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는 재학생과 교직원, 임직원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캠퍼스소개, 캠퍼스뉴스, 캠퍼스맵, 멀티미디어, 식당메뉴, 대학·학부 소개, 대학원소개, 입시정보, 취업정보, 도서관, 학생정보, M-클래스, 등의 크게 1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어플의 하부 콘텐츠는 총 37개에 이른다.

이와 함께 캠퍼스 내 외부 인터넷 네트워크 1GB 시스템을 구축해 한중일 간 화상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Wi-Fi(무선인터넷)망 및 유무선 연동 서비스 구축도 완료해 캠퍼스 내 통신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 제8회 독서 토론회

민석도서관에서는 교육의 내실화 정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책 읽기와 발표능력 강화를 위해 “제8회 독서토론회”를 2010년 10월 28일(목) 14:00~18:00 까지 진행하였다.



### ▶ 토론주제 : 세계화와 글로벌 리더십

- 예선 6팀 12명, 학생 73명
- 본선 4팀 8명, 학생 127명, 사회 1명
- 교수 3명 <박선영(심사위원), 정찬영, 이재익>

### ▶ 토론 선정 도서

-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 『세계화의 뒷』, 영림카디널, 1998
-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창해, 2003
-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필맥, 2000
-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갈라파고스, 2007
- 『탐욕의 시대』, 갈라파고스, 2008

### ▶ 시상식

- 일시 : 2010년 11월 12일(금) 11:00
- 장소 : 민석도서관 1층 Multiplex



구 분	이 름	전 공
1등팀	이 송	영상문예창작
	고은지	광고PR
2등팀	하지영	청소년상담심리
	노길관	회계정보화
3등팀	정다정	간호학과
	정다이	간호학과

## 제27회 작가와의 만남



“MBC-TV 「선덕여왕」의 주인공 미실”의 작가 김별아 작가와 함께 “삶과 꿈, 영혼을 치유하는 문학”이란 제목으로 2010년 11월 4일(목) 14시 민석도서관 6층 다목적세미나실에서 작가와의 만남이 진행되었다.



### ▶ 작가 소개(출처 : YES24)

- 수상내역
  - 제 1회 세계문학상
  - 제 1회 청년심산문학상

### • 작가 이야기

1969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나 연세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1993년 《실천문학》에 중편 「단힌 문 밖의 바람소리」를 발표하며 등단했으며, 2005년 장편소설 『미실』로 제1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했다.

### ▶ 저서

- 책소개 (출처 : 교보문고)



### [ 미 실 ]

MBC-TV 「선덕여왕」의 주인공 미실  
사랑으로 천하를 얻은 신라 여인 미실의 이야기!

1억원 고료 제1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한 김별아의 소설 『미실』. 개인적 체험과 경험적 사실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떠난 소재를 통해 말하기란 독특한 어법으로 확고한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작가 김별아. 이 작품 역시 그러한 작가만의 색채를 분명히 보여주는 소설이다.



### [ 가미가제 독고다이 ]

가미가제 조선인들의 비극적 삶이  
방탕한 모던 청년 '하운식'의 희극적 삶과 만나!

## 학술 활동

### ▶ Library Concert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지식과 감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한 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10월 19일(화) 오후 3시, 민석도서관 6층 국제세미나실에서 “열린음악회 Library Concert”가 열렸다.

고충진 기타리스트는 ‘클래식 기타의 선율을 따라 흐르는 가을의 향기’라는 주제로 “Preludio From Suite Antiga/G. San-torsola(1904~1994)” 등 12곡을 연주하였다.

민석도서관 6층 국제세미나실을 가득 채운 학생, 교수, 직원, 지역주민은 클래식 기타 연주의 진수를 만끽하였다.

#### 연주자 : 고충진

- 독일 라이프찌히 국립음대졸업, (Carlo Marchione 사사)
- 제2회 대전일보사주최 전국 클래식기타 콩쿨 대상수상
- 독일 알고우 심포니오케스트라, 루마니아 박카우 필하모니

### ▶ 수채화 전시회



2010년 10월 18(월)~11월 2일(화)까지 "독일 드레스덴 출신 안드레아스 알버트 화가의 수채화 전시회"가 민석도서관 1층 U-갤러리에서 열렸다.

### ▶ 제9회 독후감 공모전

2010년도 민석도서관 100대 추천도서를 선정하여 민석도서관에서는 교육내실화, 학생들의 독서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독후감 공모를 진행하였다.

2010년 11월 26일 공모마감 결과 303편이 접수되어 작년에 비해 대폭적인 증가를 보였다.

시상식은 12월 17일(금) 11시 민석도서관 다목적세미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 ▶ 전자저널 및 웹DB 이용교육



- 일시 : 2010년 9월 29일 (수) 14:00
- 장소 : 민석도서관 4층 정보교육실
- 강사 : 엠스코코리아에서 직접 강의

#### • 이용교육 저널

- ASE(Academic Search Elite)
- Taylor & Francis    • Nature    • Science

## 이 한권의 책

# 가차 없는 신뢰의 길

브레넌 매닝 지음



디자인학부  
김수화

이 책을 만난 것은 작년 7월, 이른 무더위로 이미 한 여름 같던 41세의 생일 즈음이다. 누구나처럼 나도 종종 책을 선물 받곤 하지만, 서울에서 사역 하던 교회의 공동체에서 주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따라 동역자로 만나게 된 친구에게서 받은 이 책은, 처음 받는 순간부터 그 존재감이 남달랐다.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모교회를 찾아 새벽기도를 마친 후, 우연히 만난 그 친

구와 근래의 삶을 나누며 교재 하던 중에, 당시 내가 품고 있던 영적 고민인 하나님을 신뢰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친구는 옅은 미소와 함께 바로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책을 전하고 싶다며 이 책을 소개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이미 그 친구와의 동역 가운데 계속 되었던 서로를 통한 성령님의 역사가 이번에도 이 책을 통해 내게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마음이 두근거렸다.

‘Ruthless Trust(거침없는 신뢰)’. 이 제목은 면지에 쓰인 친구의 “신뢰엔 용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그야말로 ‘가차 없이’ 내 판단과 생각의 벽과 삶의 소음을 모두 뚫고 내게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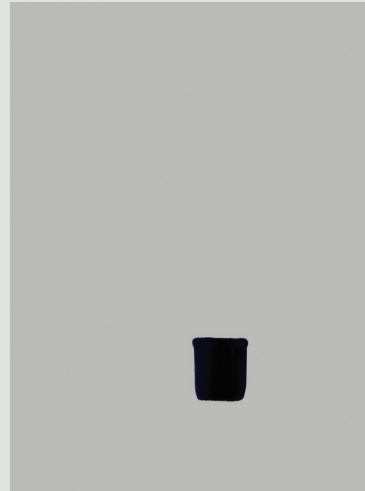
서문에서 그는 부랑아(ragamuffin)를 ‘구원받은 죄인들의 이름 없는 집합’으로 정의하면서, 두려움에 찌든 경건의 거짓 안전 뒤에 숨는 자신이야말로 부랑아임을 인정하며 책을 시작한다. 잘 나가는 카톨릭 집안의 자제에서 카톨릭 사제로, 현재는 개신교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영성가인 그의 책 전체에 깔려 있는 이 겸손함은, 삶의 연단을 통해 단련된 그의 구체적 영성의 파위가 되어 메시지를 실어 나른다. 나의 자아(ego)를 무장 해제 시키는 그의 겸손에 숙연히 감동하며, 이 책의 핵심, 이기주의를 삶의 최고선으로 여기는 우리의 삶이 자기 거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수용에 뿌리를 둔 자기 수용으로 천천히, 꾸준히, 기적처럼 변화되는 것임을 들려주는 그의 초청에 귀를 기울였다.

...이런 기대감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책 읽기는 매우 행복하나 또한 쉽지 않았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삶에 지침을 주는 정도의 책이 아니었다. 브레넌 매닝이 이 책을 쓰면서 밝혔듯이 읽는 나 또한 “내 삶과 사역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실성을 무섭도록 재성찰해야 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서는 일과,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리는 기도가 결국에는 내게 최선이고 최고의 행복임을 알면서도, 제물로 나를 내어놓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읽으면서 책에 굶는 빨간 줄과 빨간 별표, 그리고 여백에 써내려간 글은 결국 큐티(Quiet Time) 책에 쓰는 ‘레마’처럼 나를 허무는 도전이 되었다.

이 존재론적 도전의 첫 번째 항목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근본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이다. 신뢰의 근본은 내 믿음의 상태나 내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얼음판 위를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며 건너든 확신 있는 태도로

## 시설 및 환경

### ▶ 그림 설치



#### Artist

이우환 UFan Lee

#### Title

조응(Correspondance)

#### Work Date : 1995

#### Medium

Pigment suspended in glue on canvas

#### Size

227.3 x 181.5 cm

이우환은 국제무대에서 동서미술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화가이자, 조각가이며 이론가라 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 일본에서 미술평론가로 등단, 1970년대 모노하(物派) 태동을 주도하고 창작과 비평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그의 작품세계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미술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모노하'란, 이우환이 자연석과 철판을 별도의 가공이나 제작의 과정 없이 주어진 그대로 이용해 설치작품을 했듯, 가공되지 않은 자연적 물질이나 물체를 그 자체로 사용해 예술언어로 삼았던 작가들을 가리킨다. 자연 그 자체인 돌과 자연으로부터 추출된 철판의 만남을 설치작업을 통해 보여주며 자신의 사상과 미학의 첫 걸음을 떼었다.

이우환 회화 작업의 기본은 점과 선, 서체적 용필(用筆) 그리고 여백 등으로 이루어진다. 돌가루와 아교 또는 기름을 결합한 물감을 사용하는 화면은 동양적 여백을 수용하면서도 수묵화와는 전혀 다른 화면을 만들어 내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캔버스에 결코 그림을 그리는 재료가 아니라 그 자체가 그림의 일부가 되는 이우환의 화면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공간이고 마티에르이며 순수한 세계다. 이우환은 캔버스를 인간과 세계가 교섭하는 무한으로의 통로이자 문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무한이란, 닫힌 이미지가 아니라 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감지되는 무한한 세계를 말한다. 즉, 공백의 캔버스에 몇 개의 점을 찍음으로써 생겨나는 무한한 회화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로써 그의 회화는 어느 것도 스스로의 이데아의 증식이나 확대가 아니라 미지의 것을 불러들이기 위한 외계와의 관계의 장(場)이라 할 수 있겠다.

위의 작품 조응은 이우환이 1990년대부터 선보였던 시리즈이다. 커다란 획이 즉각적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이 시리즈의 특성은 아주 적은 수의 획만을 가진 공간을 주제로 한다는 점이다. 그는 '그린 것과 그리지 않은 것'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시작과 끝이 분명한 가운데로 뻗은 이 선은 화면 전체에 긴장감과 동세를 부여한다.

건너든, 무사히 건널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주관적 태도 때문이 아니라 두껍게 잘 얼은 얼음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신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무수한 약속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가능한 것이다.

두 번째 도전은, 이 신뢰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한 수용, 나와 의 화해가 필요한데, 이를 가로막는 뿌리는 교만임을 발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아들의 피 값으로 내 생명을 사시기까지 나를 용납하시고 이것을 내게 알게 하기 위해 성경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도, 나는 왜 아직도 나를 수용하지 못하는가. 나는 하나님보다도 높은 자아를 가진 교만한 자라는 것을 통감하며 이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가로막는가를 깨달았다. 이 직면 이후로, 예수그리스도 복음의 진리가 나를 온전히 자유케 하시기를, 내가 내 안에 갇힐 때마다, 약속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구하게 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이 신뢰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는 그 비결이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민감한 '감사'에 있음을 말해준다.

더구나 이 감사는 전염이 된다. 그는 감사는 삶의 관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한다고 말하며, 기도에는 훈련이 필요함을 자상하게 환기시켜 주었다.

이 책을 통해 삶이 관통 당한 궁극의 깨달음은 4장, 주님의 가뭇(kabo?d, 영광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에 이르러서였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여호와와 가뭇을 보게 해 달라고 요청하자 하나님은 인간이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감당 못할 당신의 영광에 대해 자상히 설명하시며 그의 등을 보이시는 장면이 나온다.

하나님과 함께 산전수전 다 겪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모세에게조차 허락되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갈망한다 해도 하나님의 가뭇은 볼 수 없는가. 그러나 내게 최고의 복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내가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거침없이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기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고백하는 자의 최고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가뭇을 갈망하며 드리는 세리의 기도인 것이다.

서평이라기보다는 그저 삶을 관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법을 가르쳐준 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대신한 이 글을 마무리하며, 마음에 가장 깊은 울림으로 남은 구절을 옮긴다.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선을 강하게 인정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자상히 이해하신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키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랑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없다...우리가 분주함, 우울, 집안 문제, 기타 더 심한 일의 급습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멀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신뢰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걸길로 빠지면 그 신뢰가 우리를 도로 잡아 끈다.”

나는 사명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먼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해 나는 여기에 있다. 삶이라는 은혜 위에, 하나님에 대한 거침없는 신뢰와, 하나님의 가뭇을 갈망하는 예배와, 존재의 자유함을 더욱 누릴 수 있도록 이 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시설 및 환경

### ▶ 에스컬레이트 운행시간 연장

현행 • 평 일 08:00~21:00  
• 토요일 08:00~17:00

변경 •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6:00~24:00)

### ▶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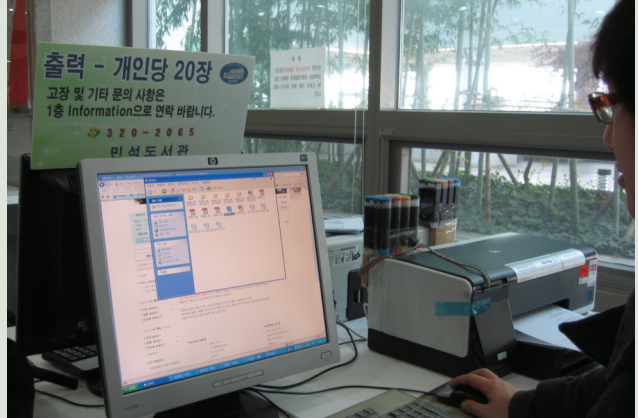


### ▶ 3층 로비 휴게 의자 설치



### ▶ 프린터 2대 추가 설치

'2010년 민석도서관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프린트 추가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민석도서관 1층 자료검색 코너에 프린트 2대를 추가 설치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 ▶ 3층 신착도서코너 게시판 설치



### ▶ 도서관 이용 시간과 열람 시설 안내

#### • 자료실 이용시간 안내

구 분	월~금	토
학기중	9:00 ~ 21:00	09:00 ~ 17:00
시험기간	08:00 ~ 22:30 (4일간)	
방학중	9:00 ~ 18:00	휴관

※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은 휴관

#### • 자유열람실 이용시간 안내

구 분	연중개관
그린홀 자유열람실	06:00 ~ 24:00
경영관 자유열람실	
민석도서관 제1열람실	
민석도서관 제2열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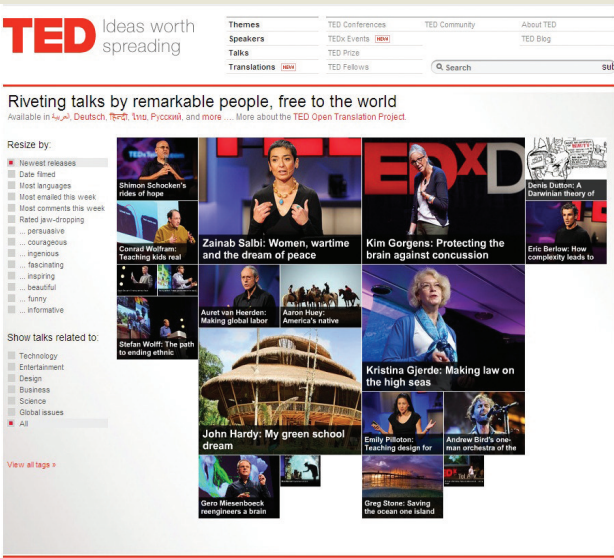
※ 시험기간 2주전부터 24시간 연장개방

# 알아봅시다

## ▶ TED란?

얼마전 인터넷 매체를 통해 'TED'라는 단어가 회자되며 많은 이의 관심을 받았다. "TED"는 세계 최고 콘퍼런스로서 세계 유명 인사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명강의를 무료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TED의 감동" 이라 일컬어지며 이슈가 되었다.

도서관에서는 "민석 도서관의 감동" 을 담고자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전자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민석 도서관 블로그 [http://dsu4u.tistory.com/186]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 TED 세계최고 과학자들의 100강

BestCollegesOnline.com에서는 1.General, 2.Science and Engineering, 3.Biology and Medicine, 4.Chemistry, 5.Physics and Astronomy, 6.Earth and Environment, 7.Technology, 8.Science in the Future, 9.Science and Business, 10.Miscellaneous 항목으로 구분하여 옥스퍼드 대학 진화생물학자인 리차드 도킨스의 강의를 시작으로 세계 최고 과학자들의 100강을 소개하고 있다.

TED의 웹사이트에는 500건이 넘는 강연이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며, 약4000명의 자원봉사자에 의해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어로 236개의 강연이 번역되었다.(2010년 3월 현재 데이터)

## ▶ 특성화 자료 신청

각종 미디어 매체의 발달에 따른 정보량의 폭발적인 증가와 학문체계의 세분화로 인해 고도화된 도서관 서비스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민석도서관에서는 영화영상, 디자인, IT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고 주제전문사서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에 새로 신설된 특성화 자료 신청 서비스와 신간 자료 초록, 목차 시범 서비스에 대해 지면을 통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 도서관 홈페이지 내 도서구입신청/조회 접속
- 특성화 자료 신청 클릭
- 특성화 자료 신간 목록 클릭



## • 서명 클릭



## • 도서 초록 목차 상세정보 보기 → 구입신청



이 서비스는 주제사서들이 신간목록을 매일 수집하여 이용자들이 특성화 분야 자료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입신청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현재 영화영상분야만 시범 서비스 중이나 앞으로 디자인분야, IT분야도 확대 할 예정)



## Multiplex 영화 상영

민석도서관 Multiplex에서는 도서관 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주제를 선정, 우수한 영화를 대학 구성원들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상영하고 있다.



9월  
주제 : 뮤지컬 영화

10월  
주제 : 세상의 종말



11월  
주제 : 요리보고 영화보고



12월  
주제 : Merry Christmas



## 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 안내

- 국제세미나실 : 69석
- 다목적세미나실 : 80석
- 정보교육실 : 60석
- 회의실 : 10석
- Multiplex : 50석
- 스타디움 : 17실 (기자재 이용가능 실 7실)

- ※ 실 사용 전 반드시 미리 예약 확인
- ※ 실 사용 문의 : 김진호 Tel)051-320-2065

## 자료 기증 안내

- 기간 : 연중
- 기증자료 : 양질의 도서 및 비도서자료
- 업적평가에 반영 : 교수 50권 1점, 5권 추가시 0.1점 증가 (등록권수기준, 50권 미만 평가제외)
- 기증 안내
  - 1) 기증의사 전달 (1층 카운터 320-2065 또는 도서관에서 방문수령)
  - 2) 교외에 있는 다량의 도서 기증 시 (도서관에서 방문 수령)
  - 3) 기증인증권수는 등록자료 권수(수령증 발급)
  - 4) 기증자료가 대학도서관 열람 및 이용에 부적합한 경우 타기관 재기증 자료로 사용
  - 5) 기증자 예우 : 1,000권 이상(총장 감사패), 500권 이상(도서관장 감사패), 200권 이상(도서관장 감사장)

## 2010년 자료를 기증해 주신 분들 (6~11월)

- | 설립자 · 장성만 | 총장 · 박동순 | 부총장 · 장제국
- | 교 수
  - 조경미 강대기 고경옥 김홍률 서용수 신 철 유인희
  - 윤일현 이완수 이정애 이진호 이창영 이채봉 이효경
  - 이훈재 전경숙 전현중 조정복
- | 직 원
  - 김경옥 김진호 김학렬 나기성 문지환 박광중 박성오
  - 박현주 배동환 안성두 안재곤 안혜진
- | 학 생 박희수
- | 일반인 이호완 심영준